

환경



#1.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모 아타운 180세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지렁이 퇴비장을 활용해 지난 2007년 3만kg에 이르던 음식물쓰레기를 절반 가량으로 줄였다. 이는 소나무 9000여 그루를 식재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와 같은 수준이다. 또,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면생리대 만들기, 폐식용유 비누 만들기, 아나바다 장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광주시 서구 차평동 해광 한신아파트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매주 폐우산을 수거하고 있다. 폐우산 천을 활용해 장바구니와 앞치마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모두 재활용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 서출발한 사업이다. 또, 폐식용유 비누를 제조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재활용장터를 통해 장바구니, 한우과 산발, 가자 등을 판매해 아파트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만 잘해도 '환경사랑'

광주, 지난해 1414t 중 63.5% 자원 활용

전남은 40%뿐... 섬지역 많아 관리 취약

온난화로 인한 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두 환경오염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재순환이다. 그중에서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재활용이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지역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을까.

8일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지난 2009년 광주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각각 1480톤과 1430톤으로 이 가운데 60.8%와 61%가 재활용되고 있다.

전국 평균은 지난 2008년 59.8%, 지난 2009년 61.1%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적극적인 재활용 관련 시책으로 지난해 발생한 1414톤의 생활폐기물 가운데 63.5%가 재활

용되고 있다.

재활용되는 품목 가운데는 음식물류가 53.2%로 가장 많았고, 합성수지류 5.6%, 종이류 5.4%, 가구류 5.2%, 유리병류 4.6%, 기타 5.7%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분리배출 체계 구축을 위해 원통이나 다세대 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자치구 재활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매월 자치구별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폐휴대폰 임시수거 캠페인, 폐건전지 및 형광등 연중 수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속자원의 재활용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추진 수익금 1275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으며, 재활용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쓰레기 줄이기 순회교육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일반 주택이 미흡한 부분

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또는 준비 중이다"며 "올 3분기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 고물상이 신고업으로 바뀌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재활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의 경우 지난 2009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899톤으로 이 가운데 40.18%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일 뿐더러, 지난 2008년 43.11%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남의 경우 섬이 많아 생활폐기물 관리가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폐전자제품 = 돈

금·니켈 등 함유된 자원 경제가치 2조2000억

대부분 버려져 수거율 고작 20%뿐... 대책시급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돈이 되는 시대다. 그 가운데서도 버려지는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2조2000억원에 이른다니 보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폐전자제품의 경우 발생량의 20% 정도만 수거·재활용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지난 5일 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TF팀도 자동차와 전자제품 2개 분야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

(EPR)대상 확대, 폐제품 수거체계 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PR이란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다.

환경부는 우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재활용이 어려운 폐가스 등 폐차 부산물 등에 대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폐차 재활용과 관련 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협력을 강화해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 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행 10종에 불과한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 의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병

장과 세탁기, TV, 컴퓨터 등 10개 중대형 제품에만 한정돼 소형가전·IT제품은 상당 부분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에 함유된 금속자원은 천연 광석보다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 1톤 금광석에서 약 5g의 금이 생산되는 반면, 같은 양의 폐휴대전화에서는 금 400g, 은 3kg, 구리 100kg, 주석 13kg, 니켈 16kg, 리튬 5kg이 생산 가능하다.

휴대전화 1대에서는 금 0.04g, 은 0.2g, 팔라듐 0.0005g, 구리 14g 등 약 20여종, 41.67g의 금속자원이 나온다. 대당 2500~3400원의 가치를 지니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면서 금속자원 확보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영산강 유역에 토종 치어 방류

지난 3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용산마을 앞 영산강 일대에서 열린 '영산강 어머니티 봉사단(단장 정성도) 치어방류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송광은 북구청장, 정성도 단장 등 시민 50여명이 참석해 잉어와 붕어 치어 2만 마리를 방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심 출현 멧돼지 '포획틀'로 잡는다

환경부, 총기사용 어려운 특별·광역시 우선 설치키로

환경부는 6일 "최근 잇따라 도심지역에 나타나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출현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할 예정이

다"고 밝혔다. 포획틀은 총기 사용이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심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부산시

는 지난 1월부터 금정산 등 주요 멧돼지 출현지역에 포획틀 10개를 설치, 모두 4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서, 소

방서, 환경청, 협회 및 단체 등과 협조해 멧돼지 기동대백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는 한편 119 등에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포획 및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도심 주변 멧돼지 서식밀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차량사고 빈발 지역의 유도울타리 개선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태랑 자전적 에세이

우리는 숲을 옮기려 했다

정기 지망생들과 후학들에게 들려주는 의리와 욕심의 우공이산 이야기

(주)이오북스

김태랑 지음 | 356쪽 | 12,000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역대 대통령들이 어렵게 내린 28가지 결정, 그 결정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토머스 J. 크라우즈, 에드윈 키에스터 지음 | 임자현 옮김 | 528쪽 | 18,000원

우리는 숲을 옮기려 했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온몸을 감고 휘도는 강력한 기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걸어온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너무나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

경남 창원 출신, 부산수산대학 졸업, 국립부경대학교 명예 경제학 박사

신민당 입당(1971년), 김대중총재 정치특보 제15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인사위원, 국회의원총장직임

영남인으로 동교동계에서 40여 년간 DJ와 한길을 걸어온 외길 인생 민주당의 산 역사 김태랑 총장이 전하는 신의와 열정의 정치 담론

김태랑

(주)이오북스 전화 02)3666-2525 www.eobooks.com